

보도 일시	2021. 12. 27.(월) 09:00	배포 일시	2021. 12. 27.(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3157)

## 2022년 스포츠산업에 총 2,097억 원 규모 금융지원

- 용자 1,843억 원 및 자금(펀드) 254억 원 지원,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 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용자] 1%대 저리 정책용자 지원 규모 확대, 1월 3일(월)부터 신청 가능**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용자\*를 운영하고 있다. ▲ '22년 지원 규모는 1,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781억 원 증액)됐다. ▲ 12월 27일(월)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1월 3일(월)부터 7월 15일(금)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용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용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용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1년 4분기 기준 1.69%(공공관리자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 < 2022년 스포츠산업 용자 추진 일정 >

구분	예산	신청·접수	심의·통보	집행기간(운전,연구개발자금)
1차	700억 원	1. 3. ~ 1. 14.	1. 25.~1. 27.	통보일~5. 30.(월)
2차	600억 원	1. 15.~2. 18.	3. 2.~3. 4.	통보일~7. 25.(월)
3차	400억 원	2. 19.~4. 29.	5. 11.~5. 13.	통보일~10. 24.(월)
4차	140억 원	4. 30.~7. 15.	7. 27.~7. 29.	통보일~12. 23.(금)

\* 차수별 신청현황 및 집행률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 가능/ 잔여금 발생 시 추가용자 시행

▲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전국 실외체육시설

## [자금(펀드)] 정부출자 규모 확대, 조기 결성·조기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펀드)을 운영하고 있다. ▲ 2022년 스포츠산업 자금(펀드)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110억 원 증액)한 신규 출자 240억 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 원을 재출자한다.

▲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용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www.spobiz.kspo.or.kr)과 대표번호(☎1566-457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펀드)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or.kr)과 대표번호(☎21-2156-20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2022년 스포츠산업 용자 공고문

